

# 0시의 인류학 탐험

독후 활동 노트

이경덕 지음

0시의 인류학 탐험  
지식 + 소설 01

유령클럽과 14번의 장례 체험  
이경덕 지음

다른

# 0시의 인류학 탐험

이경덕 지음



유령클럽과 14번의 장례 체험

지식 + 소설 01

다른

## 차례

표지 먼저 볼까요? ..... • 3

죽음에 관한 경험 떠올리기 ..... • 4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 • 5

장례 문화 안내서 만들기 ..... • 7

유령에게 질문한다면? ..... • 9

나의 장례식으로 초대합니다 ..... • 10

본격! 교실 토론 대회 ..... • 12

죽음을 앞둔 나에게 편지 쓰기 ..... • 14

다른출판사 블로그에서  
독서지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darun\\_pub\)](http://blog.naver.com/darun_pub)



## 표지 먼저 볼까요?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1.**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주제를 떠올려 보세요.
- 2.**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보세요.
- 3.** 인류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른다면 추측해 보세요.

## 활동 2

### 죽음에 관한 경험 떠올리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슬픔, 두려움, 분노, 좌절… 모른 체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찾아보죠. (4쪽)

**1.** 죽음에 관한 크고 작은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예: 친척, 반려동물, 뉴스에서 접한 소식)

**2.** 1에서 적은 경험을 했을 당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지 되도록 솔직하게 써보세요.

##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 1.** 나는 주인공 난서처럼 유령의 존재를 믿거나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나요? 나의 생각을 써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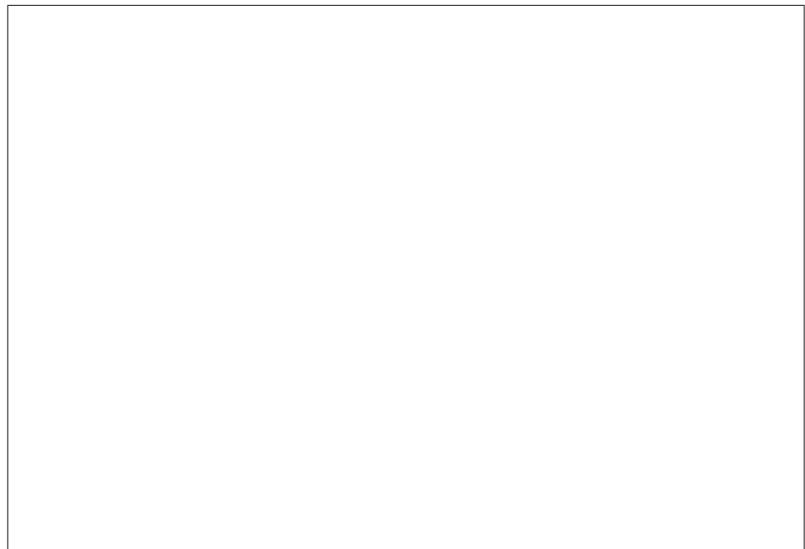
난서는 그제야 왜 자기가 유령클럽의 초대를 받았는지 깨달았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말다툼을 했다.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다시 말날 거라고 하자 친구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고 비아냥거렸기 때문이다. 난서도 죽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할머니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고, 언젠가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결국 난서는 혼자서 간직하던 진심을 꺼내 놓고야 말았다.

“며칠 전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는 분명 다른 세상에서 살아 계실 거라고.”

아마도 유령클럽에서 이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9쪽)

- 2.** 유령클럽을 묘사한 글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유령클럽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자 어느새 낯선 곳이었다. 넓고 밝은 방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고, 수십 명의 사람이 저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7쪽)



- 3.** 프롤로그까지 읽고 앞으로 난서가 어떤 여행을 하게 될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 장례 문화 안내서 만들기

**1.**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례 문화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2.** 1에서 고른 장례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나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오해가 없도록 짚어 줄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보세요.

- 3.** 내가 선택한 장례 문화를 주제로 관광 안내서를 만든다고 가정하고 자유롭게 구성해 보세요. 내용에는 장례 문화의 역사, 의의, 지역의 특성 등을 포함합니다.

세계의 장례 문화 관광

\_\_\_\_\_ 안내서

활동 5

## 유령에게 질문한다면?

1.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유령 캐릭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2. 1에서 고른 유령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질문 예시: 죽음 이후 삶은 어떤가요?

질문 1	
질문 2	
질문 3	
질문 4	
질문 5	

3. 둘씩 짹을 이루어 한 사람이 유령 역할을 맡아 답변해 보세요.

## 나의 장례식으로 초대합니다

- 1.**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장례 가운데 훗날 나의 장례식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만약 기존의 장례 방식을 따르고 싶다면 그 이유를 써보세요.
- 2.** 나만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현실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써보세요.
- 3.** 오늘날의 이색 장례 중 생전장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생전장을 기획한다고 가정하고 가상의 초대장을 만들어 보세요. 글과 그림 등으로 자유롭게 꾸미되, 장례식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생전장은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장례를 기획하고 연출해 진행하는 장례 방법이다. 장례에 드는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장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아직 죽지 않았기에 밝은 분위기에서 이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전장의 목적은 살아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례식을 장난스럽게 연출하거나 자기 사랑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생전장은 2005년 일본에서 처음 치러졌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83쪽)

### 나의 생전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 본격! 교실 토론 대회

마다가스카르의 파마디하나 축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파마디하나라는 전통적인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현대의 시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마디하나 축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해 보세요.

파마디하나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축제다. 2년 또는 7년에 한 번 시신을 묻은 토굴에서 유골을 꺼내 향수나 포도주로 닦는다. 그것을 비단에 싸서 축제가 행해지는 장소로 가져오면서 축제가 시작된다. (118쪽)

2일 동안 열리는 파마디하나 축제를 위해 사람들이 모인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유족들이 모이면 토굴에서 유골을 꺼내 마을로 가져간다. 사람들은 매장할 때 시신에 입혔던 수의를 벗기고 비단으로 만든 새 옷을 입힌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는데, 유족과 마을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흥겹게 춤을 춘다. 사람들은 시신에게 그동안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거나 담배를 입에 물려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한바탕 놀고 나면 축제가 마무리된다. (119쪽)

- 조를 이루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찬성 의견

1)

2)

3)

반대 의견

1)

2)

3)

**2.** 토론이 끝난 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죽음을 앞둔 나에게 편지 쓰기

- 1.**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글입니다. 책을 읽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보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나에서 장례식은 무거운 행사가 아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흰색의 멋진 옷을 입어서 결혼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춤을 추기도 한다.

“죽음이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난서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 기쁜 일은 아니지. 그렇지만 슬픈 일도 아니지.”

윌마는 가나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에서는 죽은 뒤에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기에 당장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42쪽)

- 2.** 1에서 생각한 죽음의 의미를 떠올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③. 먼 미래에 죽음을 앞둔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을 말을 상상해 써보세요.

To. \_\_\_\_\_

### 작가의 말

## 죽음을 잊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섭고 불행한 일만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영혼들과 어울려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죽음을 다음 세상으로 가는 다리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죽음은 계속될 거예요.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묻고 서로 다른 내놓을 거고요. 오늘날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죽음도 늘어났고, 그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난서와 유령들의 여행에서 엿보았듯이 새로운 장례 방법도 생겨나고 있고요.

단 하나,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주할지가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 죽음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 지은이 이경덕

인류학자. 한양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문화인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의례 축제 신화', '경제인류학'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새롭게 만나는 한국신화』, 『나는 스타벅스에서 그리스신화를 마신다』 등이 있고, 짧은 책으로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그리스인 이야기』 등이 있으며, 『만화 한국 신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 **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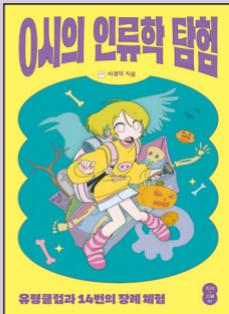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교양서와 소설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400여 종의 도서를 펴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독자의 자율적인 성장을 돋는 것'이 다른이 지향하는 책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으로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



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절벽에 관 매달기부터 죽은 이의 집 만들기까지  
유령들과 떠나는 기상천외한 죽음 문화 여행



## 0시의 인류학 탐험

유령클럽과 14번의 장례 체험

이경덕 지음 | 160쪽 | 값 16,000원

다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10 희경빌딩 4층 전화 02-3143-6478 팩스 02-3143-6479  
이메일 khc15968@hanmail.net 블로그 blog.naver.com/darun\_pub 인스타그램 @darunpublishers